

자동차극장 유치 ‘핑먹고 알먹고’

도봉구 1억원 재정 수입
지역 문화명소 자리매김
수익금 일부 장학금으로

‘자동차 전용극장으로 1석3조의 결실을...’

도봉구가 도봉산 기슭에 마련한 자동차 전용극장 ‘시네마 큐’가 ‘1석3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어려운 구 살림에 적잖은 보탬이 되는 것은 물론 문화불모지였던 이 일대가 서울 북부지역과 의정부 일대의 명소로 자리매김했다.

또 극장 주변의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소득까지 올리고 있는 것.

극장 운영을 위탁받은 ‘시네마 큐’는 11일 극장 수익금중 1,000만원을 인근 안골마을 청소년들에게 장학금으로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장학금은 2001.1.17. 도봉1동사무소에서 이 마을 32세대 45명의 학생에게 일괄 지급된다.

고등학생에게는 30만6,000원씩, 중학생은 17만3,000원씩이 지급되며 초등학생과 1세대 2자녀 가정에는 5만원 상당의 도서상품권을 준다.

장학금 지급은 도봉구청장이 지난해 운영협약을 경신하면서 시네마 큐의 사장에게 제안해 성사된 것. “자동차 전용극장으로 인근 주민들이 알게 모르게 피해를 입고 있는 만큼 수익금 일부를 주민들을 위해 쓰는 게 어떻겠느냐”는 제의를 선뜻 받아들인 결과다.

물론 도봉구도 이곳에서 1억여원이라는 세수

자동차세 미리 내세요 상반기부터 차등 감세

행정자치부는 14일 자동차세 1년치를 1월 중 미리 납부할 경우 올 하반기부터 시행키로 한 자동차세 차등부과제도를 적용해줄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차등과세 내역		※영업용 제외									
차령(년)	3	4	5	6	7	8	9	10	11	12년이상	
경감률(%)	5	10	15	20	25	30	35	40	45	50	

이에 따라 납세자는 자동차 신규 등록 후 3년이 되는 해부터 매년 5%씩 세금을 깎아주는 자동차세 차등부과제를 적용받아 1차로 세금감면 혜택을 받은 뒤 다시 자동차 선납제에 따라 추가로 10%의 세금할인 혜택을 받게 된다.

지난 94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자동차세 선납제는 1년치 자동차세를 1월이나 6월에 미리 납부할 경우 자동차세의 10%를 깎아주는 제도다.

예를 들어 6년 된 2000cc급 소나타Ⅱ 승용차의 경우 올해 자동차세액은 원래 51만9,220원이지만 자동차세차등부과제에 따라 하반기 자동차세의 20% 할인혜택을 받아 46만 7,290원으로 줄어들게 되고 여기서 다시 10%의 감면혜택을 받아 연간 자동차세는 42만560원이 된다는 것이다.

[대한매일, 2001. 1. 15(월)]